

# 광주관광재단 7월 설립 속도

### 13일 발기인총회 열어 재단 정관 심의·의결 임원추천위 구성·이사진 공모 이어 25명 직원 채용

광주 관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광주관광재단이 오는 7월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을 비롯한 문화·관광 전문가 20명이 참여한 발기인 총회가 13일 열린다. 이들은 이날 총회에서 재단 정관을 심의·의결한다.

광주시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 등 7명으로 이뤄진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할 계획이다.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임

원, 이사 등 13~15명으로 구성된 이사진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어 경영기획, 관광마케팅, 관광진흥, 관광콘텐츠 등 4개 팀 25명 규모의 직원 채용에 들어간다. 15명은 컨벤션 부로의 인력을 승계하고 나머지 10명은 공모로 뽑을 예정이다.

5월 말 창립총회를 열고 6월 법인 설립·인가를 마친 뒤 7월 설립 예정이다.

연간 예산은 재단 운영비 18억원, 민간 위탁 등 사업비 62억원 등 8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관광재단은 광주시의 출연 기관으로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 기구 역할을 하게 된다.

광주관광재단 설립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탄력이 붙었다.

김준영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을 연결할 확장된 도시형 관광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조직 구성에 들어가고 7월까지 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5.18 구묘역 환경정화 11일 문인 북구청장과 광주전남 민족민주열사 추모연대(위원장 김순) 회원, 석곡동 자생단체 회원들이 광주 북구 운정동 민주민주열사묘역(구 5.18묘지)에서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묘비타기와 방역소독 등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다.

## 광주시, 노후 하수관로 228km 정밀조사

### 침하·민원 발생지역 대상

광주시는 "도심지 내 노후·불량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싱크홀)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밀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이며, 최근 침하가 발생했거나 자치구별 민원 발생이 잦은 지역 등 하수관 노후로 인한 결함 발생 가능

성이 큰 228km 구간이다.

관경 1000mm 이상 하수관로 20km 구간은 육안으로, 관경 1000mm 미만 하수관로 208km 구간은 정밀조사용 CC-TV로 조사한다. 지반침하가 의심되는 지역은 지하구조탐사장비인 GPR 탐사 등 추가조사를 진행한다.

광주시는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수관로 내 파손이나 누수 등 결함상태의 경중과 시급성에 따라 보수계획을 수립하

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국비를 확보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앞서 광주시는 20년 이상 노후하수관로 1796km 중 2017년까지 1차로 347km를 조사했으며, 이를 토대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재식 광주시 하수관리과장은 "지반침하 발생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이번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후하수관로를 조속히 정비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21대 총선 당선인에 듣는다

민주당 광주 광산을 민형배

# “자치·분권, 균형발전 법적기반 완성”

재난대응 취약계층지원법 제정  
공공의료원 설립 적극 나설것  
광주형일자리 정상화 주력  
지하철2호선 연계 교통체계 수정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한 유산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과제인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법적 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경찰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 촛불민심이 바라는 ‘나라다운 나라’에 다가갈 것입니다.”

4·15 총선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당선인은 10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입법과 제도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선 광산구정장을 지낸 민 당선인은 지방 행정 경력과 청와대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민 당선인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전반기가 20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후반기는 21대 국회의 시간이다. 후반기는 다시 대통령과 국회의 시간, 권력 재장출의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시간’에서 남은 개혁 입법들을 최대한 처리해야 한다. 이 기간을 알차게 보내면 ‘권력 재장출의 시간’은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분위기를 타리라 생각한다”고 분석했다.

또 “상임위 맥락에서 말하자면 지금껏 해왔던 자치 영역, 위원회로 치면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리고 요즘은 과학기술 분야에도 관심이 있다. 개인적으로 이 넷 중에 둘을 골라서 해 보고 싶지만 상임위가 광주지역

당선인들에게 골고루 안배되는 게 광주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면서 “역할이 주어지면 어떤 일이든 잘 해 내겠다.”

“민형배 1호 입법안”으로 ‘재난 대응 사회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을 제정을 꼽았다. 민 당선인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보았듯이 재난은 누군가의 직장을 빼앗을 수도, 수입을 줄이게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지역공공체를 훼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재난으로 인한 사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지원책을 담은 법령이 없다”면서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인명피해나 물적 기반의 파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난의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적 재난’ 상황 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광주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공공의료원 설립에도 역량을 동원하겠다. 현재 진행중인 광주시의 노력이 구

모와 속도를 보태 전국 최대, 최고의 공공의료원 설립을 돕겠다”고 덧붙였다.

역사왜곡처벌법, 부정축재 및 범죄수익 환수법 제정 등 적폐세력을 단죄하는 법안도 구상하고 있다는 민 당선인은 “한전공대 설립, 광주SI집적단지 조성, 광주형일자리 등의 현안에도 당선되면 적극 나서겠다. 미래 광주의 일거리, 먹거리 사업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정지 복원에 대한 의지도 남달랐다. 그는 “이번 총선 표심의 의미가 무겁다. ‘대체 왜 국회가 제 역할을 안 하는 거야?’ 질문은 여기에서부터 시작했고, 광주에서는 안전한 ‘세대교체’, ‘세력교체’가 이루어졌다”면서 “중앙의 기득권은 가지고 있지만 지역 기반이 약했던 후보들 대신, 지역적 배경을 갖추고 전국에서 활약한 후보들이 당선되었다. 매우 중대한 의미다. 민주당이 호남에서 이른바 ‘대중정당’의 기반을 갖춘 것이다. 이는 당분간 변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 사업으로는 광주형일자리 정상화를 꼽았다. 그는 “광주형일자리 정상화, 광주 AI(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조성, 한전공대 설립과 4세대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달린 굵직한 현안이 많다”면서 “부처 장관에서부터 실무자까지 직접 만나 끊임없이 대화하고 적절한 때 적절한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AI산업 예산 1조 원 확대, AI인공지능 특별법 제정, AI 인공지능 중심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등을 공약했다”면서 “2026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광주지하철 2호선과 연계한 전면적인 대중교통체계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 사직공원, 음악과 빛 공간으로 거듭난다

### 시, 3억원 들여 감성조명 음악벤치 등 설치

광주 사직공원이 음악과 빛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광주시는 “사직공원 환경 정비를 위해 3억원을 투입, 안내사인, 감성조명 음악벤치 9곳, 음악의거리 벤치 1곳, 감성조명벤치 2곳, 감성데마벤치 1곳, 감성조명연출 2곳 등을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원 입구부터 피아노건반, 음표 모양

등 음악콘텐츠를 담은 다양한 감성조명 벤치를 설치해 휴식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야간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다채로운 색의 향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찰총합단에서 사직전망타워로 이어지는 산책길에는 감성조명(고보조명)과 음악벤치를 설치하고, 벤치에는 음표

와 피아노건반을 형상화해 ‘음악의 거리’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김영근 광주시 문화기반조성과장은 “바쁘고 지친 시민들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할 수 있는 도심 속 휴게공간을 만들었다”며 “향후 공원 내 구수영장 부지에 상설공연장 등도 조성해 아시아 음악공원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ESS시공전문기업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N·B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